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2011년 12월 2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정보통신산업과 최우석 과장(2110-4810), 송정훈 사무관(2110-4814) 소프트웨어융합과 최진혁 과장(2110-5151), 이현준 사무관(2110-5158)	

차세대 SW플랫폼 인력양성 및 생태계조성 사업 본격 착수

- SW플랫폼 분야의 핵심인력을 양성할 3개 대학 선정 -
- 개방형 SW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할 4개 컨소시엄 선정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홍석우)는 23일 차세대 플랫폼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「SW플랫폼 연구센터」, 「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」 사업의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확정하였음

○ 「SW플랫폼 연구센터」는 스마트TV, 모바일, 웰빙형 정보기기 분야에 각각 성균관대, KAIST, 경북대 3개 대학 총 60억원을,

○ 「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」은 사물통신(M2M)*, 데이터베이스, 자동차, 스마트기기 분야에 각각 전자부품연구원, NHN, 유비벨록스, 전자통신연구원 4곳 총 74억원을 지원

* 사물(카메라, 자동차, 자판기, 센서)들이 직접 네트워크(인터넷)에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인프라로서,물류, 에너지·시설관리 등에 폭넓게 사용 예정

□ 차세대 플랫폼 개발사업은 SW의 핵심인 플랫폼*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우리 IT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,

* 스마트폰의 구글 안드로이드, 애플 iOS 등이 대표적으로, OS 및 미들웨어 등으로 구성

○ 민간에서 플랫폼 자체 개발 의지가 있으나, 개발 인력이 부족한 모바일·스마트TV 등 3개 분야는 대학내에 「SW플랫폼 연구센터」를 지정·지원하여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,

○ 민간 플랫폼 자체가 부족하고 공개SW 생태계 구축에 적합한 사물통신(M2M), 데이터베이스(DBMS) 등 4개 분야는 「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」 과제로 선정, 플랫폼 개발 후 소스코드까지 공개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토록 할 계획임.

□ 「SW플랫폼 연구센터」 사업은 체계적 교육뿐만 아니라, 産·學이 연계된 R&D를 통해 세계적인 SW플랫폼 연구소 육성을 위한 것으로,

○ 산학 공동*으로 다양한 분야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, 개발경험을 보유한 고급인력을 양성하며,

* 주관기관은 대학이나,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 높은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

○ SW공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,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가능한 교과과정, 실무경험을 가진 교수진 확보, 해외연수 등 혁신적 교육과정과 향후 SW 연구대학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핵심인력 배출에 매진할 예정임.

* 참여 대학·기업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매칭금액의 현금비중을 50%이상으로 의무화

□ 「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」은 "개방형 SW플랫폼"(안드로이드 등) 중심의 글로벌 생태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공개SW R&D로,

○ SW플랫폼 국제표준* 논의과정에 국내 컨소시엄(SW기업·수요기업·출연연 등)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,

* ETSI(M2M), 3GPP(통신), OpenStack(클라우드), MOST(자동차 멀티미디어), Linux 등

○ 국제 표준이 반영된 우리 SW플랫폼을 개발·공개하여 수요업체, 응용프로그램(App) 개발자 등과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며,

○ 기술지원 서비스, 시스템(SW+HW) 판매 등을 통해 사업화하고 궁극적으로 플랫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임

□ 「SW플랫폼 연구센터」 사업에는 21개 주요대학*이 지원하고, 「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」에도 기업·출연연 등 총 17개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SW플랫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음

* 서울대, KAIST, 연세대, 고려대, 성균관대, 한양대, 서강대 등 주요대학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7대 1에 달함

○ 「SW플랫폼 연구센터」에 선정된 3개 컨소시엄에는 삼성전자(성균관대), LG전자(KAIST, 경북대) 등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여, 향후 개발된 플랫폼 사업화 등을 통해 예산 지원 종료(5년) 후에도 연구센터의 지속적 유지·발전이 가능

주관 / 항목	성균관대	KAIST	경북대
개발내용	○ 스마트TV 2.0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	○ UX 지향 모바일 SW 플랫폼 개발	○ 자율군집을 지원하는 웰빙형 정보기기 내장 SW 플랫폼 개발
참여기관	○ 삼성전자, 네무스텍, 아크릴, 알티베이스, 가온미디어	○ LG전자, 솔루션링크,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	○ LG전자, 오성전자, 유시스, 퓨전소프트, 인소팩, 프롬투정보통신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대구대
SW 연구대학원 전환시기	○ '13년 상반기 예정	○ '13년 상반기 예정	○ '12년 하반기 예정

○ 「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」 사업에도 큐브리드DB (NHN), 시드(Seed)팜 (ETRI) 등 공개SW에 대해 투자해온 역사와 의지가 있는 기업·출연연 4곳이 선정되어,

○ 단순히 공개SW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해당 분야에서 국제표준 반영, 글로벌 생태계 구축 및 사업화를 통해, 정부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

주관 / 항목	KETI	NHN 비즈니스플랫폼	유비벨록스	ETRI
국제 표준화	○ ETSI (M2M), 3GPP (통신) 참여	○ OpenStack 등 참여	○ MOST(자동차 멀티미디어) 참여	○ Linux 참여
생태계 구축	○ 단말기, 앱 개발자/통신사와 생태계 구축	○ 게임, 인터넷, 모바일 개발자 생태계 구축	○ 안드로이드 생태계 구축	○ 교육·산업용 등 틈새시장 생태계 구축
SW플랫폼 사업화	○ 앱개발자 /통신사 에서 사업화 可	○ NHN 사업화 ○ 공개SW로, 타기업에서도 사업화 可	○ 현대차 사업화	○ 중소기업용 ○ 독자 공개SW 플랫폼 확보 의미

□ 이번 「SW플랫폼 연구센터」와 「Seed형 오픈 플랫폼 개발」 사업을 통해 모바일·스마트TV 등 플랫폼에 핵심인력을 공급하고, ETSI(M2M) 등 국제표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,

○ 국내 세계적 기업(삼성전자, LG전자 등)과 우수대학*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산업발전과 인력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,

* 경북대, KAIST 등 선정된 지방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지방 SW인력양성에도 기여

○ DBMS 등 외산 의존이 매우 높은 분야에도 국산 공개 SW플랫폼으로 외산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,

○ 국내에서는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OS 등 핵심 플랫폼 분야의 우수 인력양성과 공개SW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참고 차세대 SW플랫폼개발사업 선정결과

□ 인력양성형 (SW플랫폼 연구센터, 3개 선정)

주관기관	분야	참여기관	국비
성균관대	스마트TV	삼성전자, 네무스텍 등	20
카이스트	모바일	LG,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등	20
경북대	헬스서비스	LG, 프롬투정보통신, 오성전자 등	20

□ 생태계발전형 (오픈플랫폼, 4개 선정)

주관기관	분야	참여기관	국비
KETI	M2M	연세대, SKT, 비트앤펄스 등	25
NHN	DBMS	선재소프트, 아헴스	18
유비벨록스	자동차	LGU+, KETI 등	16
ETRI	스마트기기	LGU+, 인프라웨어, 인천대 등	15